

2차 프로젝트

작성자 : 강 민 수

목차

1.시나리오

2.유스케이스

LMS 시나리오

※ 글의 가독성을 위하여 시나리오에 소설적 요소를 반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1.1.0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사는 도봉순은 대한민국 평범한 집안의 딸이다. 어린시절 설록흠즈, 소년탐정 김전일, 명탐정 코난을 감명깊게 보고 읽으며 남몰래 탐정의 꿈을 키워오던 봉순이는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탐정학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탐정학과 진학의 기쁨도 잠시 봉순이는 집안이 넉넉치 않아 학업과 파트타임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고 그 결과 만족할만한 학점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탐정학과의 전공과목(탐정체계론, 탐정과 법, 탐정과 형사절차, 탐정과 정보의 이해 등)을 모두 이수했고 어느덧 졸업할 시기가 다가왔다. 그때까지 봉순이는 몰랐다. 대한민국은 OECD 37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을 제도권 바깥에 둔 나라라는 것이다. 공인탐정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에서의 탐정은 홍신소를 운영하는 일개 범법자로 취급되고 있다. 막연히 탐정이 좋아서, 되고 싶어서 명탐정 코난의 뒤를 이은 명탐정 코봉순이 되고 싶었던 봉순이는 이러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대학교로 진학했고 2019년 2월 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마땅히 전공을 살려 취업하기는 쉽지 않았다. 반 년간 전공을 살려 열심히 취업준비를 했으나 현실의 벽에 심하게 부딪혀 마음의 병이 생긴 봉순이는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다. 대학교 입학식에서조차 코난을 생각하며 새로 산 시계를 오른팔에 차고(봉순이는 왼손잡이이다.) ‘유명한’ 탐정을 마취시계로 명중시키는 모션을 취하며 두근거리는 학교생활을 기대했던 대학생으로의 첫 날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눈물을 머금고 어린시절 그녀와 함께했던 코난을 떠나보내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까 손가락 빨며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학원에 다니면서 수당도 거하게 챙길 수 있는 국비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웹프로그래머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도봉구 고용노동부로 향했다.

상담을 통해 여러 정보를 취합한 후 hrd-net에 접속하여 안양에 있는 비트캠프 학원을 알게 되었고 웹개발과 관련된 강좌 커리큘럼을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는 위에는 비트캠프 아래에는 주소,문의/팩스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안내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었고 위에는 메뉴바가 있었다. 메뉴 구성은 학습관리 시스템, 오시는길, 학원소개와 강좌소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오시는 길과 학원소개에 대한 메뉴는 아무리 클릭해도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았다.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강좌소개 메뉴를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니 수업커리큘럼 페이지로 이동했다. 페이지를 확인하니 강사 소개와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의 커리큘럼과 현재 기수와 수강생 수가 명시되어 있었다. 강사는 3명 정도 되었는데 일정을 보니 강사마다 정해진 수업 날짜가 있었다. 수업을 진행중인 강사도 있고 진행준비중인 강사도 있었다. 기간은 모두 3개월로 이루어져 있었고 커리큘럼은 모두 같았기 때문에 강사만 잘 골라서 들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강의 신청하기 버튼이 있었지만 충동적으로 강의신청을 했다가 악몽의 3개월 지옥열차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강사의 이력과 수강평들을 보고 신중히 결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커리큘럼페이지 말고 학습관리 시스템메뉴가 있었다.

‘이건 뭐지?’

궁금증이 폭발한 봉순이는 들뜬 마음으로 학습관리 시스템메뉴를 마우스 왼쪽버튼으로 클릭했다. 하지만 돌아온것은

‘로그인 하세요’

라는 팝업창이었다.

‘xx’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른말 고운말만 사용해서 주변에서 ‘입에서 향기가 나는 탐정’이란 수식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기나긴 취준활동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탓인지 이제는 본인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욱부터 나오는 봉순이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은 비회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것처럼 보인다.

봉순이는 고용노동부 상담사와 상담을 계속 진행해서 결과적으로 비트캠프 안양지점을 3개월간 공부하게될 학원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커리큘럼은 강사 별로 차이가 없었고 강사마다 시작 날짜가 달랐는데 확인해보니 매월 1일에 강의를 개설하는 것 같았다. 다음

달에 바로 수업에 들어가고 싶었고 강사를 확인해보니 두 분이 계셨다 강좌소개에서 강사님 정보와 현재 신청자를 확인해보니 둘 다 비슷했다. 강사 프로필도 확인해봤는데 둘 다 수강평이 나쁘지 않았고 좋은 글도 간간히 보였기 때문에 아무 강사나 선택해도 3개월 후에 자신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겼다.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봉순이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강사님과 같이 3개월 여정을 같이하기로 결심했다.

1.1.1 메인페이지(학생)

학원 등록을 마친 봉순이는 새출발 한다는 마음으로 학원으로 갔다. 학원 데스크로 가니 매니저라고 불리는 분이 봉순이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아이디는 대학교를 다닐때 부여받았던 학번과 비슷했고 비밀번호도 수강생 회원번호랑 같았다. 봉순이는

‘바로 lms 접속해서 비밀번호 바꿔야지’

라고 생각했다. 강사님께서 학원 커리큘럼은 자바와 데이터베이스 웹으로 이렇게 3가지 과목이 1달씩 진행된다고 말씀해주셨다. 봉순이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차피 첫날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강사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고 바로 학원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비회원상태로 LMS홈페이지에 들어가니 로그인박스가 중단 오른쪽에 있었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로그인 하라는 팝업창이 떴었는데’

의아했지만 이후에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수정된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다. 바로 로그인을 시도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같았기 때문에 로그인은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LMS 전용 메뉴바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메뉴바는 페이지 상단 가운데에 위치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봉순이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왼쪽 상단에 작게 삼선아이콘을 발견했고 클릭하니 갑자기 화면 밖 왼쪽에서 메뉴목록이 등장했다. 봉순이는 당황하지 않고 메뉴목록을 빠르게 훑었다. 위쪽부터 내강의실, 질문게시판, 과제게시판, 수업자료 게시판, 스케줄 목록이 있었다. 홈페이지 아래에는 학원 인트로페이지와 같이 학원의 정보(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표자 이름, 이메일,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안내)가 명시되어 있었다.

LMS메인 페이지 상단에는 메뉴바는 그대로 있고 바로 아래 학원관련 이미지들이 슬라이드로 넘어가고 있었다. 오른쪽상단에는 도봉순님 이라는 이름에 드롭박스형태로 있었고 마우스로 클릭하니 아래에 여러 항목이 나왔는데 내정보, 내 강의실, 메인, 로그아웃 항목이었다.

LMS메인화면 중단 좌측으로는 대시보드형태로 짧게 게시판이 요약되어 있었고 그 아래로는 네이버카페, 페이스북, 카카오톡, 유튜브 아이콘이 있었는데 각각 클릭해보니 학원계정의 해당 페이지로 넘어갔다. 대부분 홍보용 페이지로 보인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란에는 ‘도봉순 님이 로그인 하셨습니다’란 문구와 함께 아래엔 내 강의실, 과제, 로그아웃 항목이 있었다. 중복되는 항목이 많았지만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디자인 되었구나 하고 넘어갔다.

제일 먼저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우측 상단 드로박스에서 ‘도봉순’ 이름 석자를 클릭하니 아래로 드롭박스 항목이 나왔고 내정보 항목을 클릭했다. 클릭하니 바로 회원기본정보 페이지로 넘어갔고 항목은 분류,아이디,비밀번호,비번확인,이름,생년월일,이메일,자택주소,희망취업분야 등등 적혀 있었고 모두 수정할 수 있었는데 아이디만은 변경이 불가능했다. 또한 항목중에서는 항목 끝에‘*’가 표시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은 필수로 입력해야만 회원등록을 할 수 있는 것 같았다. 아이디와 같았던 비밀번호를 더 어려운 패턴으로 수정하고 수정하기 버튼을 눌렀다.

봉순이는 바로 비밀번호가 제대로 변경 되었는지 확인을 위해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 로그아웃을 했다. 그 다음 바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기존에 썼던 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았지만

‘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가 잘못되었습니다 확인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

라는 반가운 메시지 창이 떴다. 기쁜 마음으로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이었다.

1.1.2 주요메뉴 및 기능소개(학생)

다시 메인페이지에서 우측상단 ‘도봉순’을 클릭해서 드롭박스 항목 ‘내 강의실’을 클릭하니 회원전용 강의실 페이지로 이동했다. 우측 상단에는 대시보드 형태로 봉순이의 출결상황이 보기좋게 나와있었는데 나의 출석-출석 0회, 지각 0회 조퇴 0회 결석 0회 이런식으로 나와있었고 아래엔 오늘의 입실 시간이 표시되어있었다. 그 바로 아래에는 과정진행률과 나의출석을 진행정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우측 상단에는 봉순이가 듣고있는 강의의 강의정보가

간략하게 나와있었는데 학원 위치와 강의명, 강사님, 강의실 정보가 나와있었다. 아래에는 성적조회 버튼이 있었다. 나중에 성적이 입력되면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질문게시판과 과제게시판이 있었는데 첫날이라 그런지 아직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았다. 과제게시판 역시 공란이었다. 그 아래에는 수업자료 게시판이 보였는데 아마도 강사님이 수업하실때 필요한 자료들을 업로드 하는것으로 보였고 다운로드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오른쪽엔 캘린더가 있었는데 이게 말로만 들던 스케줄러 인가보다.

요약하자면 대시보드는 현재 본인이 수강중인 강의의 스케줄이 짧게 나와있었고 질문게시판과 과제게시판 글 목록도 간단히 나와있었다. 물론 수업자료도 요약되어 있어서 대시보드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어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저것 LMS홈페이지를 둘러보다 정신차려보니 어느새 강사님은 수업하고 계셨다

‘뭐지? 첫날부터 수업하나?’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고 수업은 어느새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리고 수업종료 직전 강사님의 한마디

“오늘 수업한거 과제 있으니까 lms확인해서 과제확인하고 제출하세요”

강의실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봉순이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졌다.

‘아니 무슨 첫날부터 과제를 내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시나 해서 과제게시판에 가보니 과제 리스트가 있었다. 심지어 하나도 아니고 두 가지였다. 과제게시판 페이지는 다른 게시판과는 조금 다르게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진행중인 과제항목에는 내용까지 모두 볼 수 있었고 오른쪽에는 진행중이라는 문구와 미제출이라는 문구가 위아래로 나타내져 있었다. 아마 과제를 제출하면 미제출표시가 제출표시로 바뀔것 같았다. 아래에는 지난과제가 게시판형식으로 나타내져 있었고 질문게시판과 연동이 되있는것같았다. 강사님은 수업이 끝나기 2분전에 출석을 다시 한 번 불렀다. 수기로 출석을 체크하시는 듯 했다. 봉순이는 수업이 끝나고 학원을 뛰쳐나와 바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가서 바로 학원 홈페이지 LMS에 접속해서 과제 리스트를 확인하고 2~3시간에 걸쳐 과제를 완료했다. 과제 제출 페이지에서 과제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과제 제출을 완료했다. 편안한 마음으로 나머지 수업관리 메뉴를 확인해보았다. 아까 보았던 대시보드로 들어가니 스케줄러는

그대로지만 질문게시판과 과제게시판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수업자료 요약항목이 있었고 오늘 제대로 듣지 못했던 봉순이는 수업자료를 통해서 오늘 진행되었던 수업내용을 대충은 알 수 있었다. 알고보니 수업은 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대시보드의 질문게시판을 클릭하니 질문게시판으로 이동했다. 질문게시판에는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고 수업내용 뿐만이 아니라 수업 외적인 요소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다. 답변은 강사님과 행정팀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였다. 질문제목을 클릭하니 질문내용이 보였고 답변또한 자세히 나와있었기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봉순이는 질문거리가 생각나진 않았지만 게시판기능을 써보고 싶어서 질문등록을 했다. 시시콜콜한 내용이지만 어차피 삭제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 없었다. 쓸데없는 그런데 여러 질문을 작성해서 게시글을 등록하고 다시 삭제하려고 보니 삭제버튼이 없었다.

‘뭐지?’

봉순이는 적잖히 당황했다. 이마에선 식은땀이 나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관리팀에서만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좀 더 나중 일이다.

봉순이는 당황했지만 당황함보다 lms 메뉴와 기능들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컸기에 확인해보지 않은 여러 메뉴들을 둘러봤는데 이들중 어떤항목은 왠지 강사님이나 행정팀에서 필요한 메뉴인 것으로 보였다. 건의게시판이 따로 없어서 질문게시판에 건의하기로 마음먹고 수업관리 메뉴에 질문게시판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아까 봉순이가 장난으로 작성했던 질문게시글이 사라졌다

‘어 뭐지?’

봉순이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행정팀에서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지웠나보다 놀림거리가 될 수 있었는데 봉순이 입장에선 다행이었다. 질문게시판에서 질문하기 버튼은 클릭 후 lms메뉴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등록했다. 길고 길었던 하루가 끝났다.

-- 다음 날

전날 너무 많은 일이 있어서 피곤했는지 알람을 듣지 못하고 10분 늦게 일어났다.

‘벌써부터 지각하면 안돼!!’

세수와 양치만 하고 엉덩이에 불붙은 망아지 마냥 미친듯이 뛰쳐나가 지하철을 탔고 학원 계단을 두 칸씩 올라가 터질것같은 허벅지를 부여잡으며 강의실 문을 여는데 마침 강사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퍼졌다.

“도봉순!!!”

깜짝 놀라서 대답했다.

“네!!”

알고보니 출석을 부르는 중이셨다. 명색이 웹개발 학원인데 온라인 출석체크 기능이 없다는것은 좀 의아했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자리로 돌아가 lms페이지로 들어가서 어제 봉순이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글이 있는지 확인했다. 일단 로그인버튼을 눌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다. 질문게시판으로 가니 어제 봉순이가 올렸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었다.

‘질문 감사합니다. 준비중입니다’

성의없는 답변을 확인한 봉순이는 풀이 죽은 채 스케줄러를 확인했다. 스케줄러 페이지로 이동하니 왼쪽에는 캘린더가 나왔고 날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는 일정과 과제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관리자님과 강사님이 공지와 과제부여 등 주로 쓰시는것 같았지만 학생인 봉순이또한 일정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제 lms기능을 모두 사용해본 봉순이는 lms시스템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공부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 3개월 후

비트캠프의 강도높은 교육시스템으로 봉순이는 한국 최고의 웹 프로그래머가 되었고 유명한 SI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다. 그녀에 앞날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까

1.1.3 주요 메뉴 및 기능소개(강사)

비트캠프에 채용된 강사 ‘김나다’강사는 어느덧 수업을 진행한지 한 달이 넘었다. 김나다 강사는 6시 수업종료 후 가장 봄빈다는 퇴근시간 지하철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왔다. 퇴근했다고 일이 끝난것은 아니었다. 강사는 게시판, 학생 성적관리, 강의준비 등 할일이 산더미였다. 김나다 강사는 개인정비는 잊은 채 바로 학원 메인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화면 우측 상단에 LMS메뉴를 클릭해서 LMS메인 페이지로 들어왔다. 이후 곧바로 화면 중단우측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로그인란이 있어서 접속했다.

로그인을 하니 로그인입력했던 위치에는 내강의실, 출석관리, 로그아웃 버튼이 새로 생겼고 대시보드의 내용은 로그인하기 전과 같았다. 좌측 3선메뉴 아이콘을 클릭하니 위에서부터 내강의실, 출석관리, 질문게시판, 과제게시판, 수업자료 게시판, 스케줄 메뉴가 보였다. 학생들의 출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관리 메뉴를 누르자 출석관리 페이지로 이동했다. 이 홈페이지는 강사가 출석입력을 하는것이 아니고 수기로 작성해서 관리자한테 넘겨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출석관리 페이지에는 현재 진행중인 과정명과 과정기간이 적혀있었고 아래로 수강학생들의 목록이 나왔다. 표 형식으로 되어있었는데 가로는 날짜, 세로는 학생명이다. 화면에는 어제의 출석정보까지 최신화되어있었다. 정보업데이트 확인을 한 후 김강사는 게시판 페이지로 가서 학생들의 질문거리들을 이것저것 확인해보았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김나다강사가 해야할 일은 제일중요한 성적입력이다. 며칠전 시험을 치워서 빨리 입력해야 했다. 일단 김강사는 우측 상단에 본인 이름을 클릭하니 드롭박스에 내 강의실 항목이 나와서 바로 클릭했다. 화면은 강의실 페이지로 넘어갔다. 강의실페이지 좌측상단에는 오늘의 출석현황이라는 제목과 날짜가 표시되어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과정 진행률이 적혀있었다. 이제 1달 좀 지나서 35%정도 게이지 표시로 나타나 있었다. 바로 아래에는 표형식으로 출석,지각,조퇴,외출,결석 목록이 있었고 옆에는 해당 항목에 부합하는 학생들의 이름이 써져 있었다.

‘도봉순 학생은 오늘도 지각이구나’

아래에는 출석자 지각자 조퇴자 외출자 결석자의 수가 표시되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질문게시판, 과제게시판, 캘린더가 보였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성적입력 버튼과 성적조회버튼이 있었고 성적입력 버튼을 클릭했다. 바로 성적입력 페이지로 이동했다. 성적입력페이지는 과정명이 써있었고 표형식으로 세로는 회차, 가로는 학생 이름이 써있었다. 학생성적입력은 abcdef 학점으로 매겨진다. 도봉순 학생은 수업도 잘 듣지 않는것같아 보이는데 성적은 항상 A인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오늘 할일을 모두 마무리 지은 김나다 강사는 편안한 마음으로 다음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

1.1.4 주요 메뉴 및 기능소개(관리자)

비트캠프 관리자 ‘김관리’는 일찍 출근해서 홈페이지를 확인했다. LMS페이지에서 로그인화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왼쪽 메뉴에는 회원관리, 강의관리, 출결관리, 일정관리 메뉴가 있었고 회원관리 메뉴를 클릭하니 2차메뉴로 강사, 학생, 관리자 메뉴가 있었다. 하지만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강의관리 버튼을 클릭했고 페이지는 강의관리 페이지로 넘어갔다. 강의관리 페이지는 게시판형식으로 되어있었고 강의번호, 강의명, 강사명, 기간,인원,상태, 강의실순서대로 나타내었다. 맨 오른쪽엔 체크박스가 있어서 해당강의를 체크, 체크 해제 할 수 있었다. 오른쪽 아래에는 강의 등록과 삭제 버튼이 있어서 언제든지 강의를 등록,삭제 할 수 있었다. 강의 리스트 중에서 강의명을 클릭하니 해당 강의정보 페이지로 넘어갔다. 강의 정보페이지는 해당 강의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게 나와있었는데 항목으로는 강의명,강사명,수강기간,강의일정,모집현황,강의실, 강의과정,커리큘럼,학생목록이 모두 나와 있었다. 해당강의의 모집현황은 마감표시가 되어있었고 커리큘럼항목은 해당 강의 커리큘럼에 대한 파일이 있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우상단에는 강의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수정버튼과 삭제 버튼이 있었다. 중간에는 강의실 바로가기 버튼이 있었는데 클릭하니 강의실 상세페이지로 넘어갔다.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는 드롭박스로 강의리스트말고는 다른 강사 로그인시 강의페이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화면은 회원들의 출석현황과 오른쪽에는 강의정보 왼쪽 중단,하단에는 차례로 질문게시판,과제게시판, 수업자료 게시판이 대시보드 형태로 나와있었고 오른쪽엔 캘린더 이미지가 있었다. 크게 고칠것은 없어서 뒤로가기 버튼을 두번 클릭해서 강의관리페이지로 이동했다. 마침 새로 시작할 강의가 1개월 후 개강이라서 등록 버튼을 눌렀다. 강의등록 페이지로 넘어가니 강의정보 입력란 있었고 항목은 강의명, 강사명, 수강기간(시작,종료날짜 선택),수업일정(시작,종료시간 선택), 강의실 항목이 있었고, 강의계획서 첨부란과 강의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적을 수 있는 텍스트박스가 있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버튼을 클릭하니 새로운 강의리스트가 업데이트 되었다. 하지만 실수로 강의실 선택을 잘못해서 강의관리 페이지에 가장 상단에 있는 게시글을 클릭해서 강의정보페이지로 들어와 오른쪽상단에 수정버튼을 눌러 수정페이지로 이동했다. 바로 수정페이지에서 강의실을 309에서 302로 수정하고 입력버튼을 누르고 강의정보를 확인해보니 제대로 수정되어있었다. 다음으로 LMS메인페이지로 이동해서 왼쪽 삼선메뉴아이콘을 클릭하니 회원관리 메뉴가 나왔고 2차메뉴로 강사를 클릭하니 회원관리(강사)페이지로 이동했고 페이지에는 현재 학원에 등록된 강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페이지 왼쪽에는 학생관리 버튼이 있었는데 누르면 학생관리 페이지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생관리 페이지에는 강사관리 버튼이 있다.

오후가 되고 김관리는 새로운 수강생이 수강신청을 하러 와서 회원으로 등록해야했다. 회원관리(학생)페이지로 가니 오른쪽 아래에 등록버튼이 있어서 클릭해서 회원등록페이지로 이동했고 여러 항목이 있었는데 위에서부터 분류,아이디, 이름,생년월일,이메일, 자택주소 등등 항목이 있었다. 그중 아이디,이름,생년월일,자택주소 항목 옆에는 ‘*’ 표시가 되어있었는데 필수입력표시라 입력하지 않으면 회원등록이 되지 않았다. 가장 첫번째 항목인 분류항목은 ‘학생’ 또는 ‘강사’를 결정하는 항목이었고 초기 비밀번호는 아이디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아이디만 결정하면 비밀번호 변경은 회원이 알아서 하면 되었다.

회원 등록을 마치고 여러 게시판 페이지를 들어가 게시물을 확인했다. 게시물중에는 게시판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글이 몇 개 있었는데 게시글 항목 왼쪽에 체크박스를 클릭하니 체크표시가 생겼고 우측 아래에 삭제 버튼이 있어서 버튼을 클릭해서 삭제했다.

오늘 하루도 김관리씨는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 하고 늦은 저녁 퇴근했다.

유스케이스

